

국제 개발 협력

공적 개발 원조

공적 개발 원조와 봉사단 파견 현황



우리나라는 20세기 전반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한 역경 속에서 세계 정치 경제의 주변부에 머물렀으나,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발전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 개최, 1991년 유엔 가입,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으로 가시화되었다. 이처럼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져가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국내외에서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이 서구 선진국과 달라 그 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현재 개발 도상국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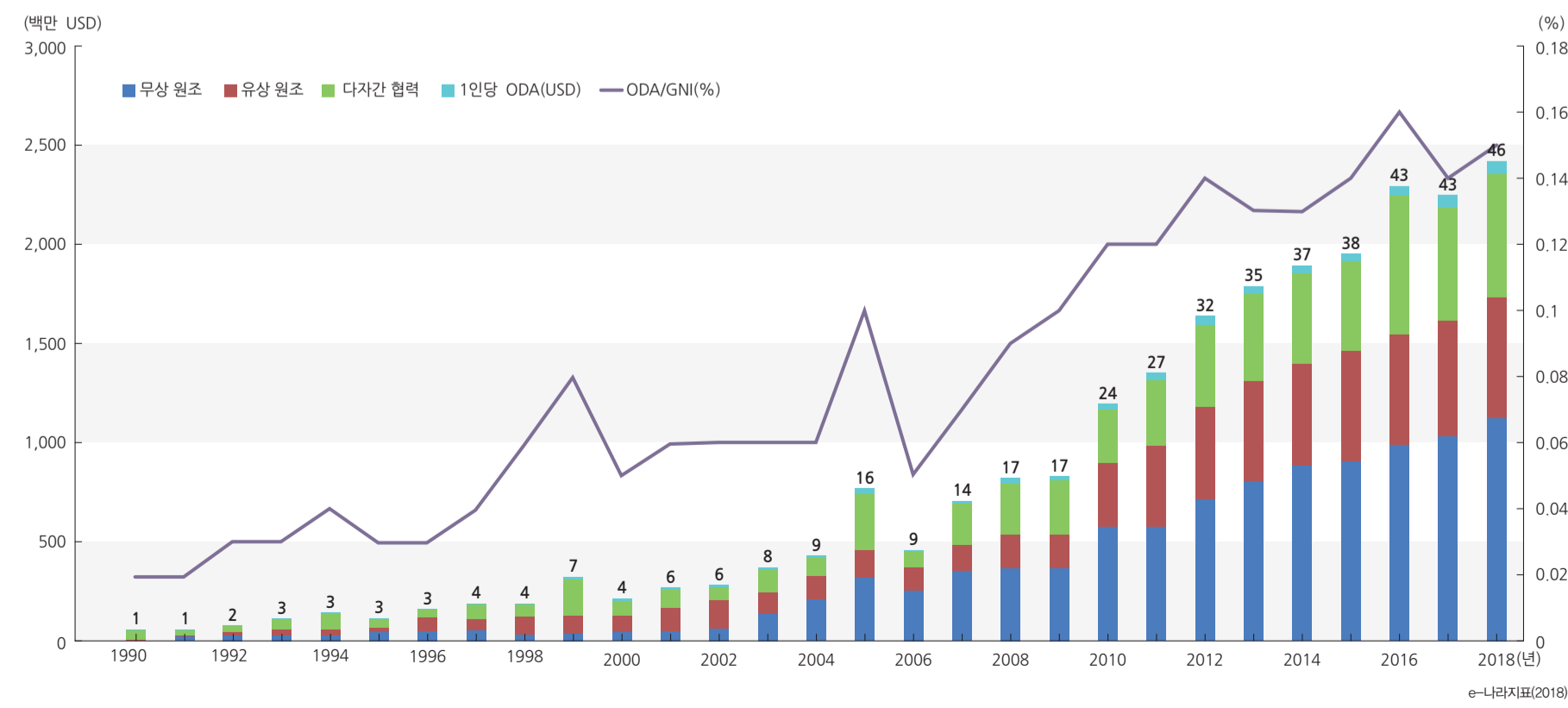
국제 개발 협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40여 년 동안 원조 수혜국이였다. 1945년 광복 및 6·25 전쟁 이후 공업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12.7억 원의 원조를 제공받았다. 그 후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고 선진국으로부터 외자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원조 수혜 규모가 점점 감소하였다. 결국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은행(WB: World Bank)의 차관 대상국 명단과 2000년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수혜국 명단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원조 수혜국의 지위를 탈피하였다.

우리나라가 원조 공여를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

간다. 하지만 당시 공여는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의 지원에 기초하여 삼각 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독자적이고 본격적인 국제 개발 협력은 1980년대 후반 이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개발 도상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고자 1987년에 대외 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설립하였고, 1991년에는 무상 원조를 전달하기 위한 기관으로 외무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립하였다.

본 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개발 협력의 현황과 추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양자 또는 다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봉사단원 파견을 분야별로 그리고 수혜국별로 나누어 고찰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개발 국가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춘 각종 지원 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 중동, 동유럽, 독립국가연합(CIS),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로 나누어 해당 지역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제 사회에서 높아진 위상과 그에 상응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유형별 ODA 추이



공적 개발 원조(ODA)란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 기관이 이들의 집행 기관이 개발 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그 일원으로서 원조 활동을 하고 있다. 위 지도는 2006년에서 2017년까지 우리나라가 제공한 수혜국 1인당 누적 무상 원조액을 보여 준다. 또한 2018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통해 세계 각국에 파견한 봉사단원을 공공 행정, 교육, 농림수산, 보건, 산업 에너지, 기타 등의 분야별로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다수의 봉사단원들이 교육, 농림수산, 보건 분야로 세계 각지에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의 선은 명목 국민 총소득(GNI) 대비 공적 개발 원조 비율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그 지원 규모를 꾸준히 높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005년에 그 비율이 0.1%로 급증했던 것은 예외적으로 남부 아시아에 발생한 지진 해일로 인한 복구를

돕기 위함이었다. 또한 1990년 1달러였던 우리나라의 1인당 공적 개발 원조액은 2018년 현재 46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적 개발 원조는 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직접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양자 간 원조와 공여국이 국제기구에 출연 혹은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자간 원조로 나뉜다. 양자 간 원조는 증여율이 100%인 무상 원조와 증여율이 25% 이상 100% 미만인 유상 원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다자간 원조는 출연, 출자, 양허성 차관으로 각각 세분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모든 유형의 원조액 규모를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1990년 1천 2백만 달러였던 양자 간 원조액은 2018년 약 17억 3천만 달러로, 동일 기간에 4천 9백만 달러였던 다자 간 원조는 약 6억 2천만 달러로 급증했다. 참고로 2018년 양자 간 원조에서 무상 원조와 유상 원조의 비율은 약 2 대 1이다. 원조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는 우리나라가 개발 도상국 발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일조하고 있음은 물론 그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지역별 무상 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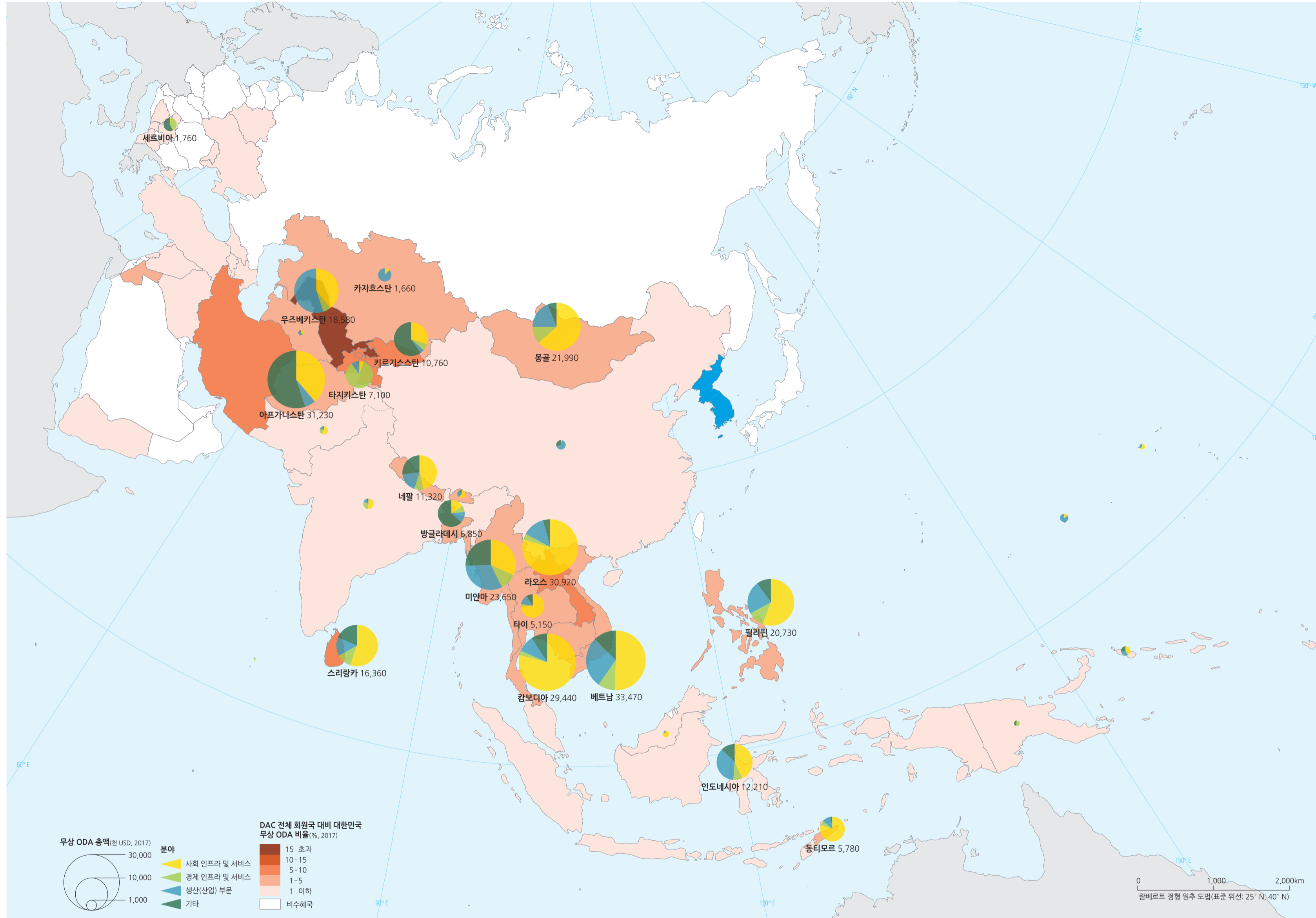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내 지역별 대한민국 무상 ODA 현황



- 1. 우즈베키스탄 시호리시보즈시 훈련 센터 설립 및 직업 훈련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2014-2018년, 850만 달러)
- 2. 우즈베키스탄 전염성 질병 관리 역량 강화 사업(2013-2018년, 600만 달러)
- 3. 우즈베키스탄 표준정 국제 동등성 확보 지원 및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2014-2019년, 700만 달러)
- 우즈베키스탄 아동병원 의료 인력 역량 강화 사업(2015-2020년, 700만 달러)
- 우즈베키스탄 ICT 기반의 수자원 정보화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시설 기반 강화 사업(2016-2020년, 700만 달러)
- 우즈베키스탄 공공 부문 혁신을 위한 국가 행정 아카데미 역량 강화 사업(2017-2020년, 300만 달러)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정보통신대학교 통합 교육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보급 지원 사업(2018-2021년, 300만 달러)
- 4.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직업 훈련원 건립 사업(2018-2022년, 890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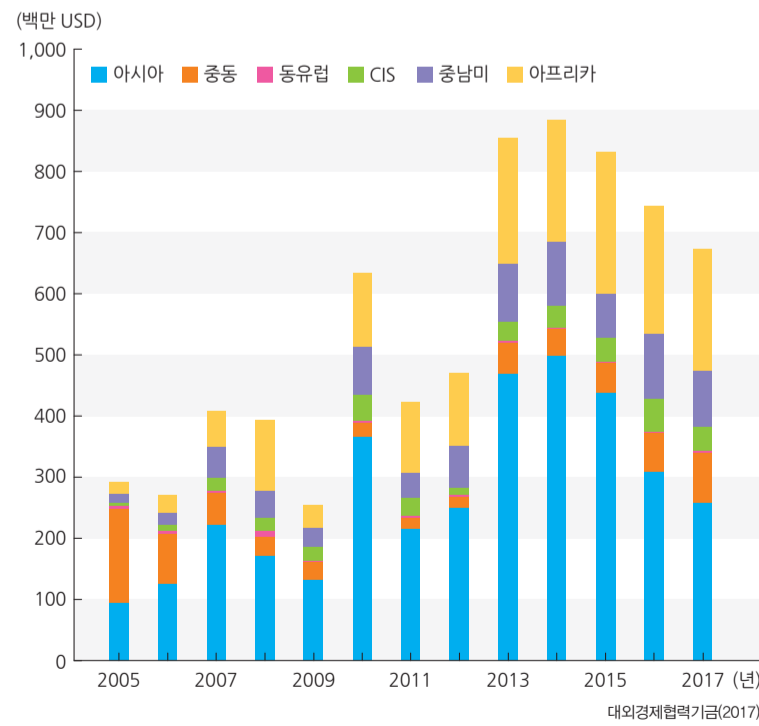
한국국제협력단(2017)

아시아, 중동, 동유럽 및 독립국가연합(CIS)에 대한 대한민국의 양자 무상 원조



대외경제협력기금(2017)

대한민국 무상 ODA 지역별 추이



그래프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중동, 동유럽, 독립국가연합(CIS), 중남미 및 아프리카에 제공한 양자 무상 원조의 추이를 보여 준다. 우선 원조액이 2010년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 중동에 적지 않은 원조가 이루어졌으나 2010년대 들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가 주요 수혜 지역으로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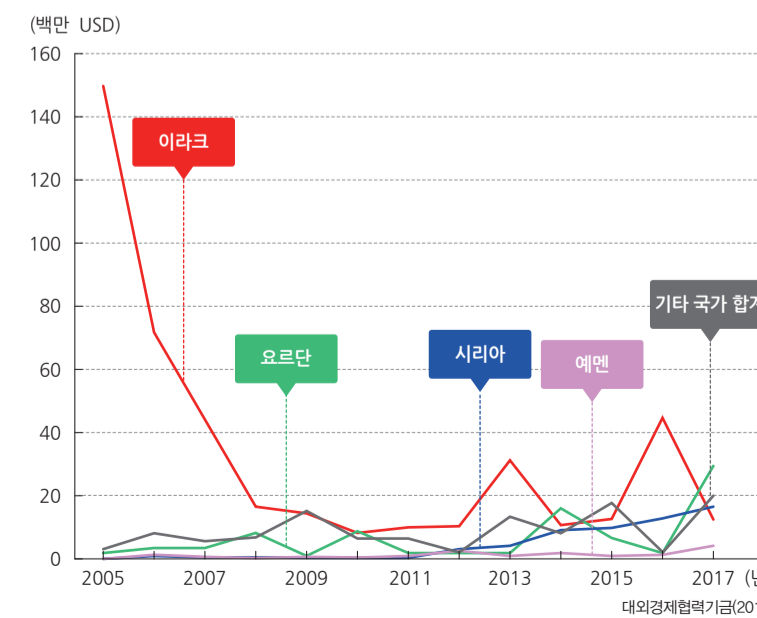
위 지도는 2017년 현재 아시아, 중동, 동유럽 및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자 무상 원조를 보여 준다. 색상은 해당 수혜국에 제공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전체 회원국의 양자 무상 원조액에서 우리나라 원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준다. 색상이 짙을수록 해당 수혜국이 받은 무상 원조액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높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대외 무상 원조를 많이 하는 수혜국이 주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동아시아의 몽골은 우리나라가 여타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에 비해 중점적으로 무상 원조하는 국가들이다.

또한 지도에서 파이그래프는 우리나라 무상 원조의 규모와 지원 분야를 수혜국별로 보여 준다.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요르단,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원조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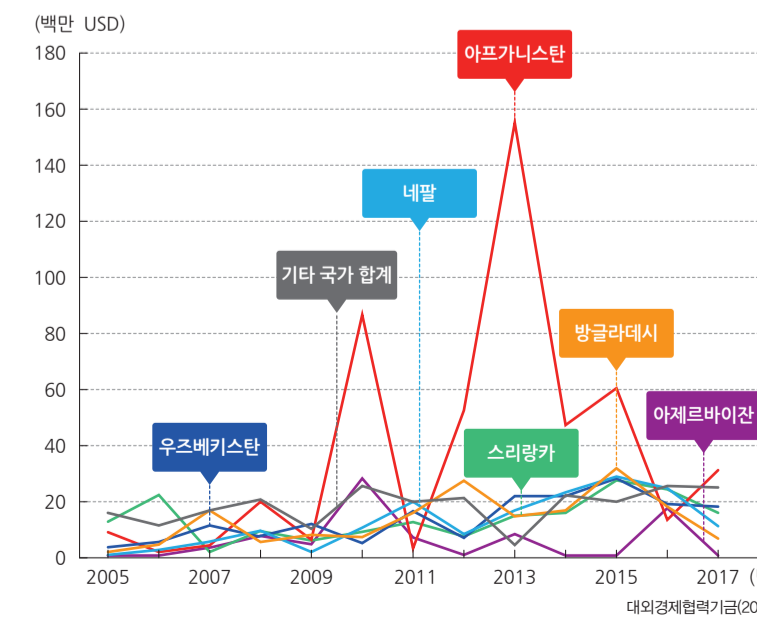
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 분야로는 원조액 기준으로 교육, 보건, 위생 등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이 가장 높고, 농수산업, 산업, 건축, 무역, 관광 등의 생산 부문, 교통·통신, 에너지, 금융 등의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내 지역별 대한민국 공적 개발 원조(ODA) 현황 지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의 다양한 무상 원조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불균등한 지리적 분포 때문에 주요 사업은 수도인 타슈켄트 시에서 진행되며, 사히리사브즈, 파르가나 시에서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사업은 현지 주민의 요구에 맞추어 의료 보건과 직업 훈련 분야가 주를 이룬다. 한편, 필리핀 내 지역별 대한민국 공적 개발 원조(ODA) 현황 지도에서는 모자 보건 등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방재 사업, 농촌 개발 사업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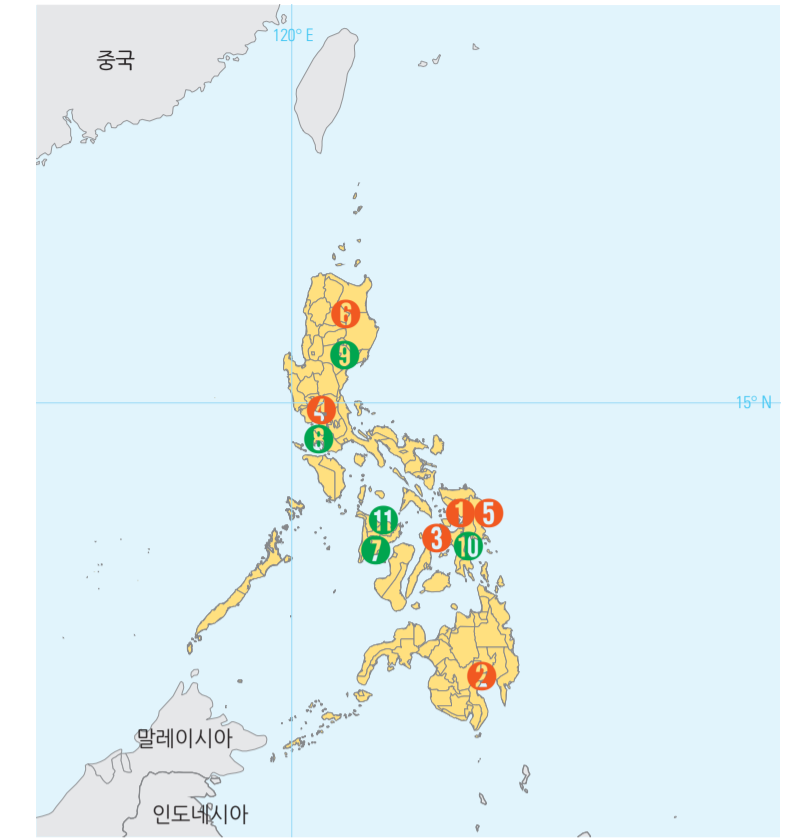
중동에 대한 대한민국 양자 무상 원조 추이



남부 아시아, 동유럽 및 CIS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 양자 무상 원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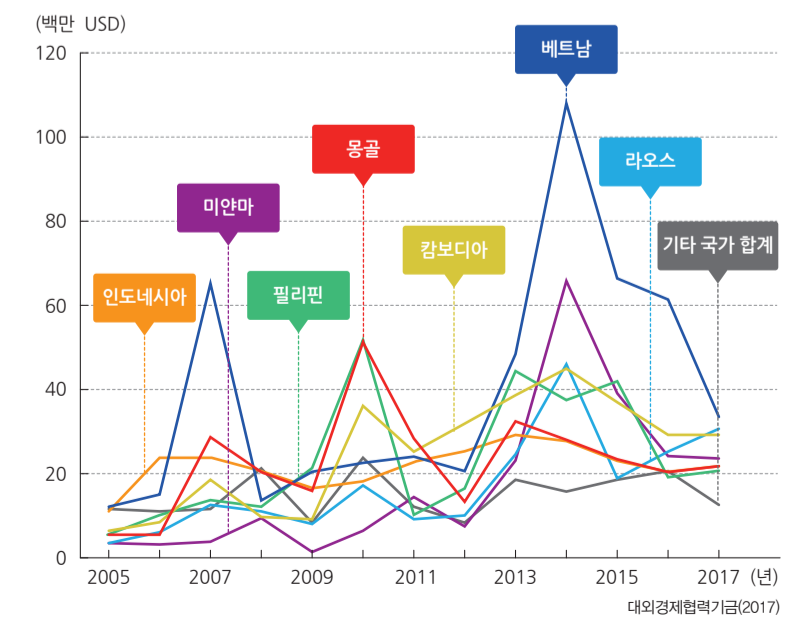
필리핀 내 지역별 대한민국 ODA 현황



- 1. 필리핀 동부 사말 기안 웰리페 아브리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 재건 사업(2015-2020년, 540만 달러)
- 2. 필리핀 WHO 다바오 지역 거점 강화 모자 보건 사업(2015-2018년, 300만 달러)
- 3. 필리핀 비사야스 주립대 톨로사 캠퍼스 재건 사업(2014-2018년, 400만 달러)
- 4.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홍수 조기 경보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2015-2019년, 520만 달러)
- 5. 필리핀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사업(2016-2020년, 660만 달러)
- 6. 필리핀 UNICEF 생애 초기 1,000일간 영양 개선 사업(2018-2021년, 600만 달러)
- 7. 필리핀 농업용수 확보 및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한 소규모 저류 시설 건설 사업(2010-2018년, 2,176만 달러)
- 8. 필리핀 북부 일로일로 대홍 피해 예방 복구 사업(2015-2019년, 550만 달러)
- 9. 필리핀 통합 의료 정보 체계 구축 사업(2014-2018년, 510만 달러)
- 10. 필리핀 퀴리노주 농촌 종합 개발 2차 사업(2018-2020년, 950만 달러)
- 11. 필리핀 UNESCO 타클로반 지역 학교 밖 소년부를 위한 교육 사업(2017-2020년, 610만 달러)
- 12. 필리핀 파나이섬 고지대 세마을 농촌 종합 개발 사업(2015-2019년, 650만 달러)

한국국제협력단(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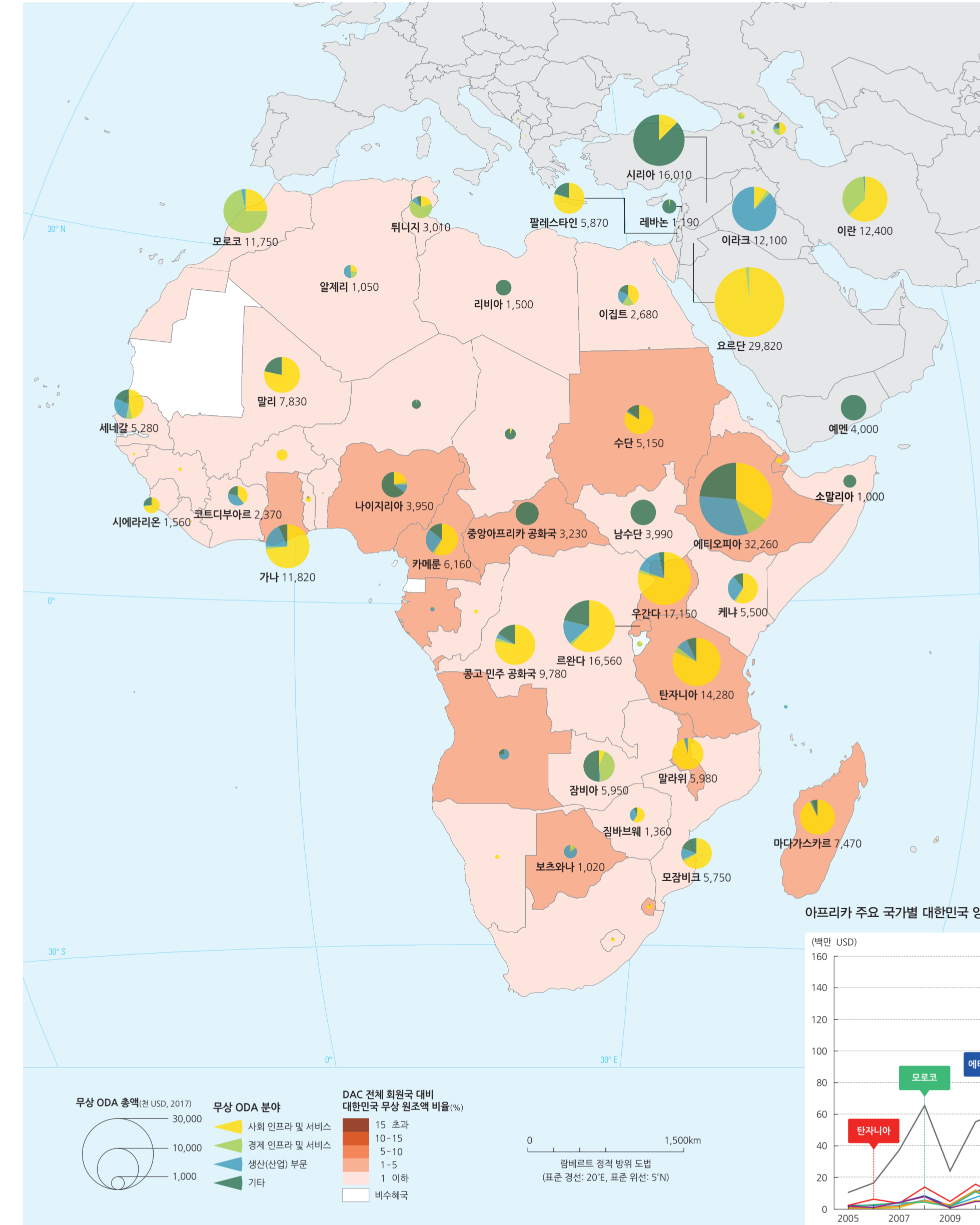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 양자 무상 원조 추이



중남미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양자 무상 원조 현황



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양자 무상 원조 현황



위 지도는 2017년 현재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양자 무상 원조를 보여 준다. 짙은 색으로 표시된 수혜국은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전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무상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멕시코를 제외한 중앙아메리카 국가들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안에 위치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율을 보인다. 그중 남아메리카의 파라과이와 카리브해 제도의 그레나다, 엘살바도르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도에서 파이그래프는 우리나라 무상 원조의 규모와 지원 분야를 수혜국별로 보여 준다. 원조액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원조하고 있는 국가는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 니카라과, 콜롬비아, 아이티임을 알 수 있다. 지원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사회 인프라 구축과 서

비스 개선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 인프라 사업의 사례로 페루에서 진행된 '제1 한페 까야오 베이비스타 의료 센터 건립 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은 1992년에 시작하여 2010년까지 총 239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그 결과 해당 지역 주민의 보건과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파라과이에서 이루어진 '10개 중앙 부처 간 인터넷 및 그룹웨어 시스템 개발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2007년에만 250만 달러가 투자되어 파라과이의 전자 정부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통신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한편 경제 및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의 사례로 에콰도르에서 2008년 250만 달러 규모로 착수하여 2010년에 완성된 '침보라소 주 관개 수로 건설 및 영농 기술 지원 사업'이 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 증가, 농업용수 확보 및 농작물 생산량 증대를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



지도는 2017년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공여한 양자 무상 원조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전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무상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짙은 색으로 표시되었다. 앞서 살펴 본 중앙 및 남아메리카의 경우와는 달리 남부 아프리카 몇몇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고루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의 파이그래프는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그리고 어떤 분야에 제공되고 있는지 보여 준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원조가 에티오피아,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가나, 모로코에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사실은 그 추이를 보여 주는 그래프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지원 분야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 인프라 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생산 부문, 경제 인프라 부문 순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혜국들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내전 혹은 기근으로 피해를 겪은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 및 생산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회 인프라 부문 사업의 일환으로서 2011년부터 280만 달러를 들여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시에서 결핵 예방 시설을 보여 주는 그래프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지원 분야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 인프라 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생산 부문, 경제 인프라 부문 순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혜국들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내전 혹은 기근으로 피해를 겪은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 및 생산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회 인프라 부문 사업의 일환으로서 2011년부터 280만 달러를 들여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시에서 결핵 예방 시설을 보여 주는 그래프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지원 분야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 인프라 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생산 부문, 경제 인프라 부문 순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혜국들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내전 혹은 기근으로 피해를 겪은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 및 생산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음을 뜻한다.